

편집성향 집단의 자기개념과 귀인양식

원 호 택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 훈 진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편집성향이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기개념 및 방어적 귀인양식과 관련된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대학생 191명에게 Rosenberg 자존감 척도, 자기개념 질문지, 귀인양식질문지, 생활사건 귀인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자기개념, 낮은 자존감, 부정사건을 외부로, 그리고 안정적인 원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편집성향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psyche)에서 유래한 위협에 대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시도에서 편집증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Hingley, 1992). 예를 들어 Freud(1915/1957)는 편집증을 받아들일 수 없는 동성애적 열망을 다루려는 시도(동성애의 부인과 투사)로 보았고, Colby, Faught 및 Parkinson(1979)은 피해망상이 자존감에 대한 위협의 지각과 그 위협의 원인을 외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방어적 기제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Cameron(1963)도 편집성격자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이론들을 현대심리학적 개념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편집증은 부정적 자기개념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방어적 귀인편향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편집증의 동기적 측면을 강조한 이러한 설명은 상

당한 설득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식 질문지나 평정척도를 사용한 연구들(Havener & Izard, 1962; Rogers, 1958; Silverstone, 1991)에서 지지 받지 못했고, 심리학에서 인지-정보처리적 접근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경험적 연구노력이 부족했다. 그렇지만 최근 자기개념이나 자존감의 문제를 편집증의 핵심적 문제로 가정하고 연구하려는 입자들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정보처리 패러다임을 적용해 망상 환자의 자기개념을 다룬 연구가 Kinderman(1994)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는 피해망상 환자, 우울증 환자, 정상통제 집단에게 일련의 부정적, 긍정적 특질 형용사를 자기기술의 차원에서 평정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 정서 Stroop 검사를 했다. 피해망상 환자는 정상 통제 집단과 마찬가지로 부적 단어보다 정적 특질 단어에 대해 더 자기 기술적이라고 평정했

다. 집단비교 결과에서도 긍정 단어의 경우 피해망상 집단과 통제 집단이 우울 집단보다 더 자기 기술적이라고 평정했다. 부정 단어의 경우 우울 집단, 피해망상 집단, 정상통제 집단 순으로 자기 기술적이라고 평정했는데, 집단 차이는 우울 집단과 정상 집단간에만 있었다. 망상 집단은 또한 정적, 부적 단어 모두에서 색명명시에 정상 집단보다 더 많은 간섭을 보였다. 그러나 우울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 집단 모두 자존감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민감함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결과는 Stroop 과제에서는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 집단이 유사하나 자기기술 평정에서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망상 집단에 독특한 방어적 과정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b)은 편집 척도(이훈진, 원호택, 1995a)를 개발해 자기개념과 자존감, 편집증적 경향과의 관련성을 연구했다. 이들은 Brehm과 Kassin(1993), Hollon과 Bemis(1981), Marsh(1993)의 입장에 따라 자존감과 자기개념을 개념적으로 구분했다. 자존감(Self-esteem)은 정동적 요소로서 자신에 대한 가치 진술(value statement)이며, 총체적이고 평가적이며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화된 특성을 함유한다. 반면 자기개념(Self-concept)은 인지적 요소로서 자신의 속성(attributes)에 대한 명제적 신념의 세트이며, 신체, 도덕, 성격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 연구결과 대학생 집단의 경우 편집증적 경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존감과 자기개념이 모두 부정적이었으나, 자존감보다는 자기개념이 편집증적 경향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이 자존감보다 상관이 높은 것은 편집증이 인지적 증상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연구는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많은 이론가들이 편집증의 원인으로 가정했던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기개념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Kinderman(1994)의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 보면, 선행 연구들(Havener & Izard, 1962; Rogers, 1958; Silverstone, 1991)에서 피

해망상 집단의 자기개념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편집성향이 망상 수준으로 발전되면서 극단적인 방어적 과정이 개입되고 통찰이 결여되어 의식적 자기보고에서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Bentall, Kinderman 및 Kaney(1994)는 피해관념에 관여하는 인지적 편향이 Higgins, Klein 및 Strauman(1985)이 소개한 자기개념 괴리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울이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의 큰 괴리의 지속으로 특징 지워지는 반면 피해관념은 이 괴리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방어적 귀인과 투사)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nderman과 Bentall(1996)은 Higgins의 자기질문지 수정판을 사용해 피해망상 집단, 우울 집단, 통제 집단을 비교했는데, 피해망상 집단은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실제 자기와 당위적 자기간의 괴리는 통제 집단처럼 작았지만, 부모 관점에서 추론된 자기개념 간 괴리는 우울 집단처럼 컸다. 이는 Bentall 등(1994)의 모형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 결과들은 피해망상 또는 피해의식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관련되며, 자존감 및 자기개념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된 독특한 방어 과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편집증에 독특한 방어적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한데, 귀인과 추론편향 연구가 이 방향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망상적 신념이 대체로 환자의 사회적 위치(처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도 귀인이론은 망상환자의 인지적 편향에 대해 보다 적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망상적 사고를 보이는 환자의 귀인과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서, Kaney와 Bentall(1989)은 망상, 우울, 정상 집단에게 귀인양식질문지(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Peterson, Semmel, von Bayer, Abramson, Metalsky, & Seligman, 1982. 이하 ASQ로 표기)를 실시하였다. 망상 피해자는 우울 피해자들처럼 부정적 사건에 대해 극도로 총체적이고 안정적인 요인에 귀인하였다. 그렇지만, 우울 집단이 부정적 사건에 대해 극도로 내부 귀인 하고 긍정적 사건에 대해 극도로 외부 귀인 하는데 반해 망상 피해자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극도로 외부 귀인 하고 긍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극도로 내부 귀인 하였다. 이 결과는 Candido와 Romney(1990)에 의해 반복검증 되었다.

Kaney와 Bentall(1992)은 Alloy와 Abramson (1979)이 고안한 기법을 사용해서 망상 피험자들의 수반성 판단을 연구했다. 피험자는 그들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한 게임에선 점수를 잃고 한 게임에선 점수를 얻도록 미리 짜여진 두개의 컴퓨터 게임에 노출되었다. 각 게임 후에 피험자에게 그 결과를 자신이 어느 정도 통제했는지를 평정하도록 했다. Alloy와 Abramson (1979)의 결과와 일치되게, 우울 피험자는 각 조건에서 적은 통제를 주장했다. 반면 정상 피험자들은 잃은 조건에서는 적은 통제를 주장하고 이긴 조건에서는 많은 통제를 주장하는 자기봉사적 편향(self-serving bias)을 보였다.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이러한 자기봉사적 편향은 정상인들보다 망상 피험자에서 더 컸다.

Lyon, Kaney 및 Bentall(1994)은 망상, 우울, 정상 피험자에게 Winters와 Neale(1985)이 고안한 비명백(non-obvious) 귀인양식 측정치를 실시하였다. 실용추리과제(PIT: Pragmatic Inference Task, 이하 PIT로 표기)로 알려진 이 검사에서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성공 혹은 실패를 기술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각 이야기를 들은 후 피험자들은 기억과제 형식으로 많은 중다선택형 질문에 응답 했는데, 이 질문들 중 일부는 이야기 속에 포함된 애매한 정보에 기초해 귀인추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었다(예를 들면, 그들의 세탁사업이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성공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된 특정 상황에 대해 피험자가 귀인 차원과 질문의도를 명백히 의식한 채 평정하는 ASQ와는 달리 PIT에서는 질문의 의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하므로 암묵적인 귀인양식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ASQ에서는 Kaney와 Bentall (1989)의 결과가 재확인 되었다. 그렇지만 PIT상에서 망상 피험자는 우울 집단과 마찬가지로 긍정 사건보다는 부정 사건에 대해 더 내부귀인 했다. 따라서 PIT상에서 암묵적인 귀인이 요구될 때, 망상 피험자들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었다. Kinderman, Kaney, Morley 및 Bentall(1992)은 Kaney와 Bentall(1989)의 연구에서 나온 ASQ자료와 자신들의 자료를 결합하여, 피험자들이 한 언어적 진술에 대해 독립적 평정자들에게 평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ASQ에서 나타난 우울 집단과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 역시 Lyon 등(1994)의 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그러나 Fear, Sharp 및 Healy(1996)는 피험자의 평정과 독립된 평정자의 평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했으며, 망상 집단은 부정 사건을 외부 귀인하는 귀인편향을 안정적으로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Lyon 등(1994)의 연구에서 시사되는 한가지 가설은 의식적 반응을 요하는 과제에서는 망상 집단이 방어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자동화된 과제에서는 우울 집단과 유사하다는 것이다(Bentall 등, 1994). 그러나 PIT는 일종의 이야기 회상과제였고, 각 시나리오 사이에 질문에 응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피험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 속의 정보 중 일부에 집중하고 기억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가 인지적 노력을 요하지 않는 우연회상의 결과라는 Lyon 등(1994)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으며, 실험상황의 암묵적 요구에 반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PIT의 시나리오들이 대부분 편집증의 핵심영역인 대인관계보다는 성취관련 사건이었다.

종합적으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Zigler와 Glick (1988)의 주장과 관련지어 검토할 수 있다. 이들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이 위장된 우울의 한 형식이라고 제안했다. 즉, 부정적 사건을 외부 요인에 귀인 하는 경향은 책임의 파기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가설은 피해망상이 자기개념의 근본적 장애와 연합되며,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기개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인지적 편향과 연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Kinderman(1994)은 피해망상의 인지적 이상은 정상인들이 보이는 자기봉사적 편향의 과장된 형태를 반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개념이나 자존감과 귀인편향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자기개념과 귀인양식을 함께 고려해 편집중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 첫 시도로 우선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것이다. 자기개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귀인양식에 있어서도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 집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피해망상 집단의 보고된 자기개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이훈진과 원호택(1995b)의 연구 결과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은 비편집 집단보다 자기개념이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피해망상 집단은 내외 귀인차원에서 극단적인 방어적 편향을 보이지만, 대학생의 경우 편집성향과의 관련성은 그 정도가 낮거나, 내외 귀인 차원보다는 안정성이나 총체성에서 독특한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도 본 연구에서 알아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집단

연구대상집단은 대학생 191명이었으며, 남자 143명, 여자 48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0.62세 였다.

도구 및 절차

1) 편집 척도. 편집증적 경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훈진과 원호택(1995a)이 제작한 편집 척도(Paranoia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MMPI를 기초로 제작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α 계수는 대학생 집단 .88, 정신과 환자집단 .92였으며, 교정된 문항 총점간 상관은 각각 평균 .49와 .59였다. 대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구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단일요인을 시사하였고, 대학생 집단과 편집 환자집단, 비편집 환자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 문항은 0점에서 4점까지의 5점 척도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80점이다.

2)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가 제작한 자존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존감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 특성들인 자신감, 자기가치감 등을 포함하는 단일차원이라는 정의 하에 제작된 것이다(Marsh, 1993).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에서 5까지 5점 척도로 채점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α 계수는 .89였고,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Eigenvalue) 1 이상의 요인은 하나로서 단일 요인이 시사되었다.

3) 자기개념 척도(Self-concept scale). 이훈진과 원호택(1995b)이 제작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self)의 특정 하위 속성(attributes)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며, 신체, 도덕, 성격, 사회적 측면의 자기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1에서 5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α 계수는 .96이었고,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9였다.

4) 귀인양식 질문지. Peterson 등(1982)이 제작한 것을 이영호(1993)가 번안하고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12개의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 그 가능한 원인을 쓰고 내부, 안정성, 총체성 차원에서 귀인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12상황 중 6가지는 긍정적 사건, 6가지는 부정적 사건이며, 긍정, 부정 각각에서 대인관계 사건과 성취관련 사건을 반반씩 구성하였다.

5) 생활사건 귀인질문지. 역시 이영호(1993)가 사용한 것으로, 피험자 자신이 최근에 경험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2가지씩 적고 원인을 추정토록 한 후 내부성, 안정성, 총체성에 대한 귀인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절차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191명에게 편집 척도, 자기개념 척도, 귀인양식 질문지, 생활사건 귀인 질문지, 자존감 척도를 집단으로 나누어 주고 완성하도록 했다.

분석

척도간 상관을 구했으며, 편집 척도 총점을 종속측 정치로 하고 자존감 및 자기개념, 귀인양식 점수를 예 언변인으로 해 단계적 변인투입에 의한 중다회귀분석 을 하였다. 본 연구 대상 집단의 편집척도 평균은 28.53(SD=10.37), 자기개념 척도 평균은 71.63(SD= 8.12), 자존감은 36.71(SD=5.91) 이었다.

결 과

1. 변인간 상관

편집증적 경향과 자존감 및 자기개념, 귀인양식간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편집 척도와 자존감 척도, 자기개념 척도, 귀인양식 점수간의 적률상관계수(r)를 구하였다. 그 결과 자존감 점수와 자기개념 점수는 편 집 점수와 각각 $-.39(p < .001)$ 와 $-.50(p < .001)$ 의 상 관이 있었고, 귀인양식 점수 중에는 긍정사건에 대한 내부귀인 및 안정성 귀인 점수가 $-.18(p < .05)$, $-.14 (p < .05)$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부정사건에 대 한 내부 귀인 점수는 $-.20(p < .01)$, 안정성 귀인 점 수는 $.23(p < .001)$ 의 상관을 나타냈다. 생활사건 귀 인 질문지의 경우 부정 생활사건에 대한 총체성 귀 인 점수만 $.21(p < .01)$ 의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참조)

이 결과는 편집증적 경향이 높을 수록 자존감과 자 기개념이 낮으며, 긍정 사건은 일시적인 것으로, 부정 사건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추론함을 시사한

표 1. 편집척도, 자존감 및 자기개념 척도, 귀인양식 점수 간의 상관행렬표

척도	SCS	SE	PIN	PST	PTO	NIN	NST	NTO	PEI	PES	PET	NEI	NES	NET
PS	-.50***	-.39**	-.18*	-.14*	-.05	-.20**	.23***	.11	-.003	.003	-.004	-.05	.13	.21**
SCS		.75***	.26***	.26***	.10	-.07	-.26***	-.17*	.12	.18*	.18*	-.12	-.04	-.18*
SE			.34***	.31***	.23***	-.14*	-.24***	-.14*	.09	.14*	.20**	-.05	-.01	-.15*
PIN				.44***	.38***	.09	.14*	.06	.05	.17*	.09	-.03	.09	-.06
PST					.51***	.13	.15*	.19**	.03	.31***	.27***	-.07	.15*	.01
PTO						.19**	.26***	.48***	.12	.26***	.28***	.02	.26***	.25***
NIN							.19**	.38***	-.03	.06	.04	.11	.09	.07
NST								.41***	-.05	.05	-.05	.03	.27***	.15*
NTO									-.04	.13	.25***	.12	.24***	.44***
PEI										.23**	.30***	.06	.04	-.04
PES											.37**	-.08	.31***	.11
PET												-.09	.05	.09
NEI													.08	.39***
NES														.31***
NET														

*p < .05 **p < .01 ***p < .001

PS = 편집 척도 총점 SCS = 자기개념 척도 총점 SE = 자존감 척도 총점
 PIN = 긍정사건에 대한 내부 귀인 점수 PST = 긍정사건에 대한 안정성 귀인 점수
 PTO = 긍정사건에 대한 총체성 귀인 점수 NIN = 부정사건에 대한 내부 귀인 점수
 NST = 부정사건에 대한 안정성 귀인 점수 NTO = 부정사건에 대한 총체성 귀인 점수
 PEI = 긍정생활사건에 대한 내부 귀인 점수 PES = 긍정생활사건에 대한 안정성 귀인 점수
 PET = 긍정생활사건에 대한 총체성 귀인 점수 NEI = 부정생활사건에 대한 내부 귀인 점수
 NES = 부정생활사건에 대한 안정성 귀인 점수 NET = 부정생활사건에 대한 총체성 귀인 점수

다. 일면 모순되는 결과는 편집성향이 긍정사건이든 부정사건이든 그 원인들 내적으로 귀인하지 않는 경향과 관련되었는데, 이는 편집성향 집단이 방어적인 경향과 겸양적인(modest) 경향을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런 귀인 양식이 편집성향 집단이 방어적 경향을 보이면서도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이유와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편집성향 집단이 사건 유형과 관계없이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편향된 주의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타 점수들간의 상관을 보면 자존감과 자기개념간의 상관은 $r = .75$ 로 나타났으며, 자존감과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긍정사건을 내적이고 안정적인 원인에 귀인하였다.

2. 편집성향에 대한 자기개념, 자존감, 귀인양식의 예언력

자존감과 자기개념, 귀인양식이 편집증적 경향을 예언해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변인투입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자기개념 총점이 편집 척도 변량의 25.24%를 설명해 예언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정사건에 대한 내부 귀인 점수가 5.15%, 부정사건에 대한 안정성 귀인 점수가 3.2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자존감 점수는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이는 자존감과 자기개념간의 높은 상관($r = .75$)과 관련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편집성향은 부정적 자기개념과 부정사건을 외부로 그리고 안정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결합된 산물로 볼 수 있다. 이 변인들간의 상호작용 점수를 추가해서 회귀분석한 경우도, 자기개념 총점이 25.24%를 설명했고, 부가적으로 자기개념 점수와 부정사건에 대한 내부 귀인 점수(외부 귀인 경향성)의 상호작용 점수가 5.41%, 부정사건에 대한 안정성 귀인 점수가 3.14%의 부가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 결과는 편집성향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낮은 자존감, 특히 부정적 자기개념과 관련된다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b)의 결과를 재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부정적 자기개념에 부가적으로 부정사건을 내부 귀인하지 않는 경향, 즉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는 경향과 부정적 사건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편집성향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자존감의 경우 회귀분석에서 자기개념에 더한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지만, 이는 자기개념이 자존감 보다 편집성향과의 상관이 높고($r = .50$; $r = .39$), 자기개념과 자존감 자체의 상관이 높아서($r = .75$) 자존감의 설명력이 자기개념의 설명력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편집성향은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부정사건을 외부로, 그리고 안정적인 원인에 귀인할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편집증적 경향이 자기(self)와 관련된 장애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망상 집단의 보고된 자기개념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부정 사건을 외부귀인하는 방어적 경향이

표 2. 편집증적 경향에 대한 자존감, 자기개념, 귀인양식의 예언력

척도명	R	R ²	F	B	SE B	Beta	T
자기개념 총점	.5024	.2524	55.37**	-.55	.07	-.50	-7.46**
부정사건 내부 귀인	.5513	.3039	35.58**	-3.75	.93	-.26	-4.02**
부정사건 안정성 귀인	.5797	.3361	27.33**	2.37	.81	.19	2.93*

* $p < .01$ ** $p < .001$

극단화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망상 집단이 극단적인 방어적 귀인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들(Candido & Romney, 1990; Kaney & Bentall, 1989, 1992; Fear 등, 1996)에서 확인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편집증 및 피해망상의 치료에 대한 것으로, 편집증에 대한 심리치료에서 자존감 및 자기개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핵심적 치료 요소임을 시사한다. 편집증 및 망상에 대한 심리치료는 그동안 거의 시도되지 않다가 최근 몇몇 임상가들(Alford & Beck, 1994; Brett-Jones, Garety, & Hemsley, 1987; Chadwick & Lowe, 1990, 1994; Chadwick, Lowe, Horne, & Higson, 1994)이 인지-행동적 접근을 통해 망상적 사고의 수정을 시도했다. 이들의 치료 기법은 망상적 인지에 대한 논리적 도전이나 행동실험을 통한 망상의 수정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망상적 사고에만 초점을 둔 치료 기법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개념상의 혼란 또는 부정적 자기개념이 편집증의 주요 요인이고, 자신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동기에서 강한 인지적 왜곡과 편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Bentall 등(1994)이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Alford와 Beck(1994)도 망상에 대한 인지치료 과정에서 자존감의 저하와 부정적 자기평가에 직면하게 됨을 경고했다. Freeman과 Beck(1990)도 편집성 성격장애의 치료에서 자기효능감(sense of self-efficacy)의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Yusupoff와 Tarrier(1996)도 망상적 인지 자체보다는 대처方略 또는 자기관리 기술 증진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Chadwick과 Trower(1996)는 편집증을 피해망상형과 처벌형(punishment paranoia)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망상적 인지 보다는 자기평가에 대한 개입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기개념과 자존감이 편집증 이해와 치료의 핵심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망상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본 연구 결과도 피험자들의 자기보고에만 국한된 결과이기 때문에 편집성향 집단의 기저의 자기개념이나 의식적 노력이나 의도성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암묵적 귀인을 알아보기 못했다. 따라서 Stroop 과제를 사용한 Kinderman(1994)의 자기개념 연구나 비명백 귀인양식질문지를 사용한 Lyon 등(1994)의 연구를 응용한 새로운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가지 중요한 제한점은 우울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MacKinnon과 Michels(1971)는 편집증의 기저에 우울이 있다고 했으며, Zigler와 Glick(1988)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우울의 위장된 형태로 보았다. Candido와 Romney(1990), Bentall 등(1994)은 편집장애와 우울증이 서로 관련되는 증상이며, 같은 원인, 즉 불쾌한 기분(침체된 기분: dysphoric mood)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편집증과 우울의 핵심적 차이는 귀인양식에서 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편집증을 연구할 때는 우울 수준을 통제하거나 우울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포함시켜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뿐아니라 일반 전집 중 편집성향이 높은 집단과 피해망상 환자 집단을 포함해야 하고, 우울 수준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거나 우울 집단, 또는 우울과 편집증이 동반된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하며, 의식적 자기보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이영호(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 모형을 통한 분석.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훈진, 원호택(1995a).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훈진, 원호택(1995b).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편 연차학술발표논문집, pp 277-290. 서울: 편자.

- Alford, B. A., & Beck, A. T. (1994). Cognitive therapy for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69-380.
- Alloy, L. B., Abramson, L. Y. (1979). Judgment of contingency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students: Sadder but wise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8, 441-485.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 Brehm, S. S., & Kassin, S. M. (1993). *Social Psychology(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Brett-Jones, J., Garety, P., & Hemsley, D. (1987). Measuring delusional experiences: A method and its application.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257-265.
- Cameron, N. (1963).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Boston: Mifflin Company.
-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 Chadwick, P. D. J., & Lowe, C. F. (1990). Measurement and modification of delusional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25-232.
- Chadwick, P. D. J., & Lowe, C. F. (1994). A cognitive approach to measuring and modifying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55-367.
- Chadwick, P. D. J., Lowe, C. F., Horne, P. J., & Higson, P. J. (1994). Modifying delusions: The role of empirical testing. *Behavior Therapy*, 25, 35-49.
- Chadwick, P. D. J.,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punishment paranoia: A single case experi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351-356.
- Colby, K. M., Faight, W. S., & Parkinson, R. C. (1979). Cognitive therapy of paranoid conditions: Heuristics suggestions based on a computer simulation mode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 55-60.
- Fear, C.,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61-67.
- Freeman, A., & Beck, A. T.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Freud, S. (1915/1957 영역판). *A case of paranoia running counter to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the disease*. London: The Hogarth Press.
- Havener, P. H., & Izard, C. E. (1962). Unrealistic self-enhancement in paranoid schizophrenic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6, 65-68.
-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 51-76.
- Hingley, S. M. (1992). Psychological theories of delusional thinking: In search of integration.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 347-356.
- Hollon, S. D., & Bemis, K. M. (1981). Self-report and the assessment of cognitive functions. In M. Hersen, & A. S. Bellack(Eds). *Behavioral assessment: A practical handbook(2nd ed.)*. New York: Pergamon Press.
- Kaney, S., & Bentall, R. P. (1989). Persecutory delusions and attributional styl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2, 191-198.
- Kaney, S.,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 delusions and the self-serving bia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 773-780.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06-113.
- Kinderman, P., Kaney, S., Morley, S., & Bentall, R. P. (1992). Paranoia and the defensive attributional style: Deluded and depressed patients' attributions about their own attribution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 371-383.
- Lyon, H. M., Kaney, S., & Bentall, R. P. (1994). The defensive functions of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rom attribution task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4, 637-646.
- MacKinnon, R. A., & Michels, R. (1971). *The psychiatric interview in clinical practice*.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 Marsh, H. W. (1993). Self-esteem stability and responses to the stability of self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7, 253-269.
- Peterson, C.,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 Y., Metalsky, G. I., & Seligman, M. E. P. (1982).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287-300.
- Rogers, A. H. (1958). The self-concept in paranoid schizophreni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4, 365-36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rsh (1993)에서 재인용]
- Silverstone, P. H. (1991). Low self-esteem in different psychiatric condit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185-188.
- Winters, K. C., & Neale, J. M. (1985). Mania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282-290.
- Yusupoff, L., & Tarrier, N. (1996). Coping strategy enhancement for persistent hallucination and delusions. In G. Haddock & P. D. Slade(Eds). *Cognitive-behavioural interventions with psychotic disorders*. London: Routledge.
- Zigler, E., & Glick, M. (1988). Is paranoid schizophrenia really camouflaged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3, 284-290.

The Self-Concept and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Group

Hotaek 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on-Jin Lee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is that paranoid tendency is related to low self-esteem, negative self-concept, and defensive attributional style.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the Self-concept Scale,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the Life Event Attribution Scale were administered to 191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anoid tendency was related to negative self-concept, low self-esteem, and attributional styles that attribute negative events to external and stable causes. The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